

제7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록

1. 일 시 : 2008. 07. 02(수), 14:00~15:00

2. 장 소 : 율곡관 2층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총 11명 중 8명 참석

참석 평의원 : 이일영 의장, 유승화 평의원, 이순일 평의원, 유승익 평의원
오상탁 평의원, 이화숙 평의원, 강태현 평의원, 김관영 평의원 (이상 8명)

불참 평의원 : 이원희 부의장, 김찬영 평의원, 박윤규 평의원 (이상 3명)

4. 개회선언

의 장 : 학생대표인 김찬영 평의원이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김찬영 평의원을 대신하여 총학생회 권영갑 정책국장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한 간사도 연수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적평의원 11명 중 8명의 평의원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선 보고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보고사항

기획팀 김주용 : 네, 간사인 이중한 기획팀장이 연수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보고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 : 기획팀 김주용>

○ 제6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1. 관 련

- 제6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록(2008.5.28)

2. 조치사항

- 정관 제31조, 제32조에 대한 대학평의원의 의견 및 건의 공문 발송
(기획처 → 학교법인 대우학원 : 2008.6.25)
- 회신 요청일 : 제7차 대학평의회 회의(2008.7.2) 이전

< 간서명 란 >

의 장



- 내 용

- ▶ 직원을 대표하는 대학평의원의 추천 및 위촉자격 완화
: 5급 이상의 정규직원 → 7급 이상의 정규직원으로 개정
- ▶ 학생대표 평의원 수 증원
: 1명 → 2명(전체 평의원 수 : 11명 → 12명)으로 개정

(기획팀 김주용이 제6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칩니다.)

의 장 :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심의사항 아닙니까? 이사회가 언제 개최될 예정입니까?

기획팀 김주용 : 8월 8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 장 : 7월 중 개최 예정이 아니었나요?

기획팀 김주용 : 7월 18일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8월 8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 장 : 네, 보고사항에 대해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의사항

기획팀 김주용 : 2페이지의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 : 기획팀 김주용>

1. 제안 근거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35조

2. 제안 요지

1) 개정 사유

- 산업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정원 증원 요청에 따른 정원 조정
- 보건대학원 신설(2003.6)에 따라 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과 보건의료전공을 폐지함.

< 간서명 란 >

의 장



- 사립학교법의 개정(2005.12.29)으로 인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예산·결산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로 개정함.

2) 개정 주요 내용

- 제21조(학생정원) : 2008학년도 2학기 정원조정에 따라 별표6 내지 별표8을 개정함.
 - 정원감축 : 대학원 22명(772명→750명), 경영대학원 20명(400명→380명)
 - 정원증원 : 산업대학원 12명(79명→91명), 공공정책대학원 30명(101명→131명)
- 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 보건대학원 신설(2003.6)로 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과의 보건의료 전공을 폐지함에 따라 별표4를 개정함.
- 제69조(재정의 건전성) :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예산 및 결산 회계에 관한 자문을 대학평의원회에서 하도록 개정함.

(기획팀 김주용이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칩니다.)

의 장 : 학칙 개정(안)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일반대학원의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기획팀 김주용 :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대학원의 정원증원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정원을 증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런데, 회의자료와 교무회의록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평의원 유승화 : 각 대학원이 T/O만 가지고 있고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 보다는 정원이 부족한 대학원으로 정원을 조정해 주고 신속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의 장 : 교육부의 기준으로는 전체 정원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요?


기획팀 김주용 : 네.

평의원 유승익 : 보건의료전공이 폐지되면 공공정책대학원의 정원이 남지 않습니까?

의 장 : 보건대학원이 처음 생길 때 이미 정원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보건대학원 신설 당시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원이 줄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정원 조정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면 심의하기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 배경 자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본부 관련 부서의 결정을 그대로 믿고 추인하라는 것입니까?

평의원 유승화 : 특수대학원은 독립채산을 하고 있고, 특수대학원의 운영수익금은 건물을 짓기 위해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특수대학원 정원의 증가는 특수대학원 수입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특수대학원은 독립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수익금이 특수대학원의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도 학교에 도움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전체의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버헤드를 20%로 할 것인가 30%로 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일반대학원의 정원을 줄여서 특수대학원의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의원 유승화 : 일반대학원의 T/O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특수대학원에서 T/O를 늘리기 때문에 일반대학원의 T/O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평의원 이순일 : 네, 회의자료 4페이지를 보면 이번에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학연산 협동과정의 정원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원이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대학원의 활성화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보건대학원이 분리되어 나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 장 : 의과대학과 유사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김관영 : 특수대학원의 경우 수입을 기본으로 운영되고, 일반대학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의한다면 일반대학원이 계속 축소될 것인데, 이렇게 놔두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관계를 고려한 심의를 위해서라도 정원 조정의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평의원 유승화 : 안 쓰는 정원을 가지고 있으니 정원을 좀 내어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수대학원으로 들어오는 돈이 한 해 2~3백억원 정도 됩니다.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그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짓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대학원에 오는 사람들을 일반대학원으로 오도록 유치를 해야 하

< 간서명 란 >

의 장



는 것이지요.

평의원 유승익 : 교육대학원의 경우 정원이 272명이며, 인문대학원 중에서는 규모가 크고 수익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부가 없고 대학원만 있는 상태로 독립채산제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대학원의 6~7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학부에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적은 강의료를 받으며 강의를 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육대학원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6~7분의 교수님들께서 그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학부 교수님들의 값싼 노동력 제공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단과대학별로 하나의 특수대학원과 연결을 시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특수대학원의 돈이 많아졌는데 학교나 학부로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원을 늘려야 하고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축적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대학원의 발전에 학교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유승화 : 다른 대학교에서는 아주대학교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해서 교육대학원 교수님들이 갖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으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 등이 없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다른 시각에서 보면 특수대학원을 대학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특수대학원 자체를 위해서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의원 유승화 : 그래서 오버헤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네,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만, 교육과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시간을 15시간 하고 있는데, 책임시간을 줄인 이유가 나머지 시간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특수대학원 시간당 강의료가 정규 강의의 몇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는 분들의 노력이 그 쪽으로 들어가면서 학생들과 연구, 학교를 위해 쓰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의 장 : 네,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의원 강태현 : 학교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정말 복잡하네요.

평의원 김관영 : 그러면 다음 평의원회 회의 때 회의록 등의 관련 자료를 검토해

< 간서명 란 >

의 장



보면 어떻겠습니까?

의 장 : 네, 다음 평의원회 회의 때 이 안전과 관련된 교무회의록, 대학원위원회 회의록, 특수대학원 위원회 회의록, 규정 등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기획팀 김주용 : 네.

평의원 이순일 : 학칙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특수대학원의 수시 모집에 지장이 생기는 것입니까?

기획팀 김주용 : 네. 수시 모집 일정상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 장 : 그러면 우선 이 안전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만장일치 동의에 의하여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다.)

평의원 이순일 : 이사회가 8월 8일에 개최된다고 하셨습니다. 직원 직급 및 학생 평의원 수 관련 정관개정 요청 건의 진전을 확인 하려면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의 장 : 그 안전에 대한 대답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 상황을 보며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상황을 계속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 김주용 : 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오상탁 : 공문이 발송된 시점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평의원 김관영 : 저나 강태현 평의원님처럼 외부 분들은 전자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의 사인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 장 : 회의록 서명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7. 폐회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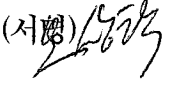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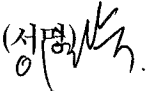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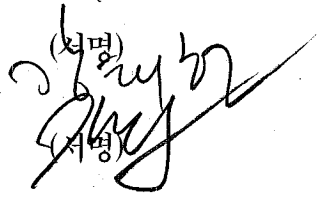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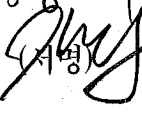
의 장 : 이상과 같이 심의사항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 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2008년 7월 2일

의 장	이 일 영	
평의원	유 승 화	
평의원	이 순 일	
평의원	유 승 익	(서명)
평의원	오 상 탁	(서명) 
평의원	이 화 숙	(서명) 
평의원	강 태 헌	(서명) 
평의원	김 관 영	(서명) 
기 록	김 주 용	